



업 짓는 분노



이근훈
열린마음의원 원장
본지 논설위원

분해서 몹시 성을 내는 것을 분노라고 한다.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혼히는 원인이 밖에 있다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성을 낼만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성을 내어야 옳다. 그러나 꼭 성을 낼만한 일이 있는가를 반추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왜 분노할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이익이 없으면 분노한다. 이타적인 성격으로 성장하면 이런 분노는 점차 사라진다.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가는 문화와 습관에 따라 분노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분노가 업을 짓는 행위임을 통찰한다면 누가 그 업을 짓겠는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마땅히 내어야 할 분노라고 합리화를 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든 테러와의 전쟁임을 앞세워 마땅히 분노해야 할 분노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간곡히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중에 있는 티벳의 스님의 말처럼 내안의 분노를 삭인다면 부시의 분노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란 말씀은 옳다. 이 세상의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습관 그리고 생각을 강제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도록 할 수만 있다면 부시의 부당한 분노도 삭여지지 않을까 싶다. 티벳의 스님의 작은 메아리가 전 세계에 퍼졌으면 한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指鹿爲馬)”는 말이 있다. 힘을 배경으로 억지로 밀어붙여 참과 거짓을 뒤바꿔버리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전후해서 미국이 벌이는 행태를 보면 바로 이 말이 해당하는 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정적인 증거도 내세우지 못하면서 유엔을 무시하고, 국민적인 지지도 충분치 않은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라는 강변을 누가 믿는단 말인가?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그게 말이야? 무슨 미친 소리야! 사슴을 말이야!”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처럼 힘없고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나라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부끄럽게도 “그게 말 맞아요”하고 나선 우리 나라의 언론도 미국의 침공 목적은 세계 석유시장의 지배 등의 자국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당연한 것이라는 듯이 보도하고 있다. 참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시로 대표되는 미국이 옳으나, 후세인으로 대표되는 이라크가 옳으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것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



불자 세상보기

성태웅
건국대 철학과 교수

폭력의 악업 끊어야...

야기를 하는 바탕에는 어느 한 쪽은 선이고 다른 한 쪽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심심찮게 ‘기독교적인 흑백논리’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종교와 관련시켜 말하는 것을 금기(?)로 삼는 우리 언론 풍토에 있어서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위험을 이제 어느 정도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인지하게 되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미국의 행태가 가져올 다음의 파장이다. 자기와 다른 쪽을 무조건 악

으로 규정하고 말살하려는 방식이 세계의 최강대국에 의해 저질러졌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의외적이나마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방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미국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 이런 논리를 사용한다면 극단적인 테러를 포함한 모든 수단 또한 용납되지 않을 수 없다. 9·11 테러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을 써도 좋다는 면죄부처럼 휘두르고 있는 미국... 이런 침공도 그런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테러를 합리화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아무도 그것을 저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이라크 침공은 세계사적인 비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힘들다. 그러나 전쟁이 가져오는 참화를 생각하면 전쟁은 아무리 신중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오직 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전제를 미리 깔고 유엔도 무시하고 세계 여론도 무시한 미국의 처사가 가볍게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마음에서 아니라 전쟁으로 참화를 입을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능한 적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폭력에서 폭력, 테러에서 테러로 이어지는 악업의 확대재생산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전쟁에서 이기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세계무대에서 미국이 퇴조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행하는 조계종단의 마인드

최근 이해하지 못할 소식을 들었다. 한 달여 전 조계종의 제1차총무원위원회가 신도들이 착용하는 법복 통일용 골자모인 ‘신도법복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듣자하니, 신도법복이 승가복식과의 구분이 곤란해 청정승단의 모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란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이 같은 발상을 하는 조계종단의 마인드다. 사회 흐름조차도 다양화되고 있는 마당에 신도법복을 특정 복장으로 못 박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출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출가자 못지않은 이들의 ‘신심’에까지 조계종의 간섭할 권리가 없다. 지나친 관여보다는 이들의 수행을 뒷받침할 제가수행자 수행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신심을 펼칠 마당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리다. 임태연(서울 성북구 정릉동)

문화선진국에 먹칠하는 ‘도굴꾼’

국보인 전남 화순 쌍봉사 칠감선사탑이 도굴꾼에 의해 훼손됐다고 한다. 다행히 탑에는 손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한사람으로써 씁쓸한 마음을 지을 수 없다. 쌍봉사 칠감선사탑은 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다. 일반인들로 치자면 무덤인 셈이다. 그런데도 부도를 파헤치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니 스스로 부끄럽기까지 하다.

문화재를 한낱 돈과 결부시켜, 이를 밀매하는 자태는 문화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문화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후손들도 누려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 문화재를 아끼고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적 마인드가 절실한 것이다.

김성철(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독자마당

대중공연은 포교의 선두주자

지난 주말 친구와 함께 타악 뮤지컬 ‘야단법석’을 봤다. 행사자들이 ‘음악공양’을 통해 깨달음을 다가간다는 주제와, 공연 전부터 잔잔히 들리는 진언을 응용한 음악 때문에 내심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하지만 막상 막이 오르자 탭댄스와 신나는 음악으로 나의 우려를 맘껏 날려 보냈다. 현란한 댄스와 공연 중간에 맑은 풍경소리가 더해져 청량감마저 들었다. 공연을 본 친구가 ‘불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해 더욱 기뻐했다.

다음 달이면 오랜 제작기간을 거친 영화 ‘동승’과 ‘오세암’도 개봉한다고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대중공연들이 더 많이 소개된다면 불교포교에 또 다른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정효진(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복지혜택 못 받는 사회복지사

내 아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다. 작년 겨울부터 복지관에 취직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아내는 늘 복지사가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아내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겼다. 복지관에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꾸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다. 내 아내는 급여 등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사명감이 강한 복지사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무에 비해 보수나 대우, 복지혜택이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마음이 착한 내 아내지만 ‘정작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복지가 없다’는 푸념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복지관 종사자들이 힘겨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복지사업인 것 같다.

허현호(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독자 투고

불교의 장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 1600년. 신라시대에 불교는 국교로서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찬란한 불교미술을 꽃피우게 되었다. 이 시대에 지어진 황룡사의 9층탑은 당대 이웃나라들의 침략을 막고 국내민안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불국사와 석굴암은 이 땅에 불국토를 이루어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고려시대에 여러 차례 외세의 침입을 겪었을 때도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팔만대장경을 완성함으로써 국가의 인성을 기원했다.

하지만 고려의 쇠퇴와 더불어 탄압받기 시작한 불교는 조선시대에 너무나 가혹한 길을 걷게 되었다. 승려들의 도성출입이 금지되었고 사찰의 토지가 몰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시련 속에서도 불교의 깊은 뿌리와 영원불변한

종생과 함께 시대변화에 적응해야

진리는 우리를 마음속에서 이어졌다. 나라에 우환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생사를 가리지 않고 각자의 소임을 다했다.

이제는 이 시대의 우리 불교도 현실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 1600년이란 세월을 안고 걸어온 불교신앙이 전철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미래의 불교를 탄생시켜야 한다.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에 불과하지만 그 교세와 전도는 불교를 몇 십 배 능가하고 있다. 지나 깨나 부처님 앞에 앉아 목탁이나 치고 요령만 흔들어 대고 복을 비는 사부대중도, 화두만을 참구하는 수행자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대중을 향하여 뒤돌아 앉아 무명중생들을 이끌어주고 회교를 함께하는 개방불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불교의 장래에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이다.

김진태(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시녹화사업 ‘서울 그린트러스트’ 결성

민·관이 하나가 돼 서울도시녹화에 나서는 ‘서울 그린트러스트(Seoul Green Trust)’가 결성된다. 서울시는 18일 ‘사단법인 형태로 6월까지 결성해 시와 시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시녹화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폭염성 조경사업 △학교 공원과 △옥색 녹화 △환경경~종묘, 북한산-관악산 녹지축 연결은 물론 한 가정 녹지 1평 사기, 1기립 1녹지 관리 등 자발적인 녹지사업 노력도 펼치게 된다.

장군속미

도선사 직원 신도대기소에서 ‘닭요리’

도선사 직원들이 15일 밤 7시경 신도대기소에서 버너로 닭백숙을 요리. 한 신도가 놀라며 “신도대기소에서 이런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있나?”고 묻자 3-4명의 처사들은 “괜찮다. 도선사 직원”이라고 했다. 조식자라 밝힌 박 모 불자는 도선사 홈페이지에 “이래도 되는 건지 송고하신 부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냐”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도선사로 향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간(肝)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응달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 구슬알 참다슬기를 죽은 것까진 펌데기를 굴러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가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려에 넣고 왕겨 9가마를 달인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걸로 다슬기 기름을 얻어낸 뒤 향이려에 녹여 넣어줍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든 뒤 왕겨가 다 터들어 거기까지 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교향은 지금” 조진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제1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대상 선정기준		인원	상금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하신 분	3명	각 3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한 시, 소설, 극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분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연극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하신 분		

2. 구비서류
① 신청서 또는 추천서(지정양식) 1봉
② 이력서(명함판 사진 3장) 1봉
③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내 실적자료) 1봉

3. 제출처 및 신청 마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계단 사무국 (우편번호 137-070)
☎ 02)586-6521-2 / FAX 521-9948
· 신청마감: 2003년 6월 30일
· 본 재단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4. 심사 발표 및 시상일
· 시상일: 2003년 9월 24일 수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法人 理事長 朱永云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가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응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량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응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노년층
-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노년층
-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김현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금급업체 : 케이앤알링크 / 홈페이지 : http://www.kn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